

부처설화의 스페인으로의 전이과정 연구 — 최초의 기독교화 판본을 중심으로 —

김 선 옥
단독/강원대학교

Kim, Seon-Uk(2004), Estudio sobre la peregrinación de la leyenda de Buda a España - sobre la primera versión cristianizada. *Revista Iberoamericana*, 15, 21-45.

Se conoce la leyenda de Buda, *Lalitavistara* o *budacarita* de Ashvagosa, a través de las traducciones tibetanas y chinas, se ha divulgado a la Asia de Extremo Oriente(Tibet, China, Mongolia, Corea y Japón) y a través de la versión pali, había difundido a la Asia sudeste(Myanmar, Tailandia y la Península indochina). Es decir, solamente hacia Este desde la India. Pero desde los primeros siglos de nuestra era la transmisión búdica tenía el rumbo hacia al Occidente.

Su primer escenario de peregrinación es la Asia central, sobre todo, Bactrian y Sogdiana, donde las culturas orientales y occidentales se intercambiaron. En esta zona se encontraron unos fragmentos maniqueos muy importantes para nuestro estudio. Entre estos fragmentos antiguos turcos hay dos extractos de un prototipo de la leyenda de Buda. La siguiente etapa de la migración de nuestra historia es la zona árabe. De las versiones maniqueas derivan las versiones árabes. La primera de ellas, *Kitab Bilauhar wa Budasaf*, sería la obra de los maniqueos residentes en Bagdad en el siglo VIII. Desde la versión árabe aparecen las primeras versiones cristianizadas, las versiones georgianas. Y por Eutimius se tradujo a la versión griega con más perfeccionamiento cristiano. Y por esta versión griega se deriva hacia la Europa de Este y aparecieron las versiones europeas ortodoxas(búlgara, armenia, serbia, rusa, etc.), y por otra parte, hacia la Europa latina desde la cual se expandió al mundo católico(española, francesa, portuguesa, etc.). Mi estudio estriba en esta peregrinación y la primera versión cristianizada.

Key Words: Leyenda de Buda/ Lalitavistara/ Barlaam y Josafat, 부처 설화/ 랄리타비스타라/ 바를람과 호사팔

I. 들어가는 말

중세에 스페인을 비롯한 전 유럽에서 널리 퍼졌던 성인 열전 『바를람과 호사팔 *Barlaam e Josafat*』은 부처 설화¹⁾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이 설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진(西進)하여, 먼저 마니교 판본으로 고대 페르시아어와 고대 터키어의 판본으로 나타난다. 이후 아랍 지역에 유입되어 이슬람교적인 성격에 맞게 변형되어 유포되다가, 약 10-11세기경 그루지야와 그리스 지역으로 전해져 기독교화 된다. 인도에서 출발한 부처 설화가 긴 여정을 거치면서 여러 문화권으로 흡수·변형되다가 중국에는 그루지야와 그리스를 거치면서 싯다르타가 기독교 성인 호사팔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어 판본의 중요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바를람과 호사팔』이 바로 그리스어 판본을 통하여 전 유럽으로 번역되어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스어 판본이 기독교 정교 지역으로 유입되어 불가리아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되었으며, 서유럽으로는 우선 라틴어로 번역된 후, 독일어와 스칸디나비아어 계열의 언어, 라틴어 계열의 언어(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로방스어, 불어, 루마니아어)로 번역되어 전 서유럽으로 퍼지게 된다. 나아가 중세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많은 유럽 작가들(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로베르 데 베가, 갈데론 델 라 바르카 등)에게 소재와 주제 혹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부처 설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스페인에 전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로써, 특히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최초의 기독교 판본에 대한 여부, 즉 부처설화가 최초로 기독교화가 이루어진 판본이 그루지야어 판본인지 혹은 그리스어 판본인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최초의 기독교 판본에 대한 논란은 최초의 기독교 판본의 저자 혹은 역자가 누구인가 하는 파른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현재

1) 부처 설화, 특히 부처의 탄생과 득도 과정 및 초창기 포교에 관한 것을 다룬 설화로는 대표적인 것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랄리타비스타라 *Lalitavistara*』와 기원후 1세기에 아쉬바고사에 의해,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서사시 『부다차리타 *Buddhacarita*』가 있다.

까지 이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의 기독교화 된 『바를람과 호사팔』은 그리스 판본으로 이것이 후에 그루지야어로 축소 번역되었다고 보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바를람과 호사팔』이 아랍어 판본에서 그루지야 판본으로 변형되면서 최초로 기독교화 되었으며, 그루지야 판본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고 보는 의견이다. 본 연구는 그루지야 판본과 그리스어 판본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고, 나아가 부처 설화의 스페인으로의 전승 과정을 완결할 것이다.

II. 전승 과정

1. 서아시아 마니교 판본

1.1. 마니교 판본이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지리적 배경

인도에서 출발한 부처 설화의 서쪽으로 전승되어 가는 긴 여정에서 첫 번째 무대는 마니교가 널리 퍼졌던 서아시아 지역이었다.

기원후 초창기에 불교는 북쪽, 특히 티베트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 티베트가 공산 중국에 의해 무너질 1950년까지 불교는 티베트의 공식 종교로 번성하였다. 또한 북서쪽, 즉 동투르키스탄(중국의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으로 전해진다. 이 두 왕국은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고대 두 지역의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대하(大夏)라고 부르는 박트리아는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帝國)의 박트리아나주(州)였다.²⁾ 기원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자 박트리아를 독립국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인해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그의 제국으로 편입되었다가, 제국이 붕괴한 뒤에는, 그 유장(遺將)인 셀레우코스 1세가 세운 시

2) 지리적으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해당된다.

리아 왕국의 한 주가 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왕국이 쇠퇴한 틈을 타, 사트라프(Satrap, 州知事)로 임명된 디오도투스가 중앙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박트라(지금의 발흐)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스계의 독립 왕국을 탄생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삼았다. 한때는 인도의 일부를 점령하는 등 대제국으로서의 세력을 떨쳤으나 200년경에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642년부터는 아랍의 지배를 받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된다. 이후 10세기 이후에는 여러 투르크계 왕조의 지배와 몽골족의 지배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아프간족의 지배가 찾아온다.

박트리아는 그리스계(系)의 왕국으로서, 오랫동안 동방에 있어서 헬레니즘의 기수였다. 인도에서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예를 들어 간다라 미술 등은 이 왕국의 유산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지방의 일부를 근거로 쿠산 왕조가 일어났고, 불교 문학의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은 《밀린다 판하 Milindapah》의 한역본으로, 이것은 박트리아의 왕 메난도로스(밀린다)와 불교승인 나가세나(나선)가 불교 교리를 플라톤식 문답 형식으로 논한 경전(經典)형태의 것으로, 그리스 문화와 불교의 접촉이 밀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소그디아나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주(州)로 수그다라고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속특(粟特)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 북서의 일부가 타지키스탄에, 남쪽의 일부가 카자흐스탄에 속해 있다. 이 지역에는 예로부터 사마르칸트⁴⁾와 부하라 등의 도시국가가 세워졌다. 이후 아케메네스조(朝)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제국의 붕괴 이후에도 정착하게 되어 동양에서의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후 박트리아, 대월지(大月氏), 쿠산조(朝)·사산조(朝) 페르시아, 에프탈, 서돌궐의 지배를 받았고, 8세기에 아랍의 지배로 전 주민이 이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70127>

4) 현재 우즈베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사마르칸트주(州)의 주도(州都)이자 중앙아시아 최고(最古)의 도시의 하나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마라칸다(Maracanda)로 알려졌고, 중국에서는 남북조(南北朝) 시대부터 수·당 시대에 걸쳐 강국(康國)이라고 불렸다. 1220년 칭기즈칸에 의해 폐망되기까지는 실크로드의 교역 기지로 번창하였다. 11세기에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되었고, 뒤에 우즈베크인(人)의 도시가 되었다.

슬람화되었다. 그 후 1220년에 칭기즈칸의 서정(西征)으로 공략되어 황폐화되었으나, 1370년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면서 부흥됐다. 이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처음에 불교를 접했다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 후에 마니교로 개종한 자가 많았다.

바로 이 두 지역에 불교가 전파된 것이다. 불교 전파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지역이 갖는 중요성은 특별하다. 우선 이 지역은 동서 교량적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수많은 세력의 정복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로 수많은 세력의 지배를 받아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역사적 콘텍스트에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당연히 이 지역에도 인도의 불교 문화, 페르시아의 마니교 문화, 고대 투르크 문화, 헬레니즘 문화, 이슬람 문화 등 수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불교는 아소카 왕의 통치 시절에 처음으로 인도 밖으로 퍼져나갔다. 인도 최초의 통일 왕국인 마우리아 왕조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소카 왕은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심지어는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먼 곳까지 불교 선교사를 보냈다.⁵⁾

그리고 그리스계인 박트리아에 마하라키타(Maharakkhta)를 비롯한 여러 불교 선교사를 보냈는데⁶⁾, 그들은 부처와 부처를 신성시하는 여러 기록과 또 불교의 교리가 바탕이 된 아소카 왕의 칙령을 기록으로 남겼다.⁷⁾ 특이한 것은 이들 중 그리스계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불교에 관한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또한 1960년대에 칸다하르나 카블과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도시에서 아소카 왕 칙령이 다수 발견되었다.⁸⁾ 이것은 일찍부터 이 지역에 불교의 영향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소카 왕 이후에 그의 제국은 점차 약화되어 결국 브라만교를 믿으며 불교를 탄압하는

5) Arthur Cotterell(1988), *Diccionario de mitología universal*, Barcelona, Ariel, 86.

6) 망월신형(望月信亨)(1995),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김진열 역, 서울, 불교시대사, 58.

7) D. M. Lang(1967), "Introducción", *Barlaam and Ioasaph*, Ed. & Trad. of G.R. Woodward and H. Mattingly, London & Cambridge(Massachusetts), William Heinemann Ltd. & Harvard Univ. Press, XV.

8) 장택화준(長澤和俊)(1991), 『동서문화의 교류』, 민병훈 역, 서울, 민족사, 165.

승가 왕조에 의해 멸망한다. 이는 많은 불교도들이 서쪽으로 특히 헬레니즘이 성했던 지역으로 피신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불교가 좀 더 폭넓게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소그디아나 왕국에도 일찍부터 불교의 영향이 전해졌다. 3세기경부터 많은 불교 승려들이 중국 지역으로 불교 경전을 가져가서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⁹⁾

지금의 카스피해 남단에서 이란 북쪽에 이르는 지역에 속하는 파르티아 왕국에도 불교가 전해졌다. 2~3세기 경부터 왕국의 많은 불승들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도의 서쪽에서 페르시아 동쪽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일찍부터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파르티아 왕국은 지리적으로 고대 터키,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지역의 그리스 정교도인들이 불교와 접촉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불교가 이 지역에 시간을 두고 퍼졌던 마니교, 이슬람교 등과 접촉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1.2. 마니교 판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부처 설화의 유럽으로의 전래 과정에서 처음으로 다른 언어로 각색되어 나타난 것이 마니교 판본이다.

서쪽으로 전파된 불교는 3세기에 마니에 의해 창설되어¹¹⁾ 페르시아부터 동투르키스탄에 이르는 광범위한 서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졌던 마니교와 만난다.

9) 망월신형, 앞의 책, 59-60.

10) 위의 책, 59.

11) 3세기 무렵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敎)를 바탕으로 하여 파생된 종교. 교조 마니의 이름을 따서 마니교라고 불렀다. 마니는 조로아스터와 부처, 예수 계시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통합시켜 보편적인 세계 종교를 만들려고 했고 단순한 혼합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했다. 마니교는 동·서양을 문화적·종교적으로 결부시키는 교량 역할을 했으며 성전으로서 마니의 7개 유서가 전해온다. (야후 백과사전 참조 <http://kr.encycl.yahoo.com/enc/info=1317020&q=마니교>)

물질을 절대적인 악으로 정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마니교는 금욕주의나 신비주의와 서로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마니교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육신은 악의 본질로 감옥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를 통하여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¹²⁾ 이러한 사상은 바를람이 호사팰을 교화시키기 위한 설교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며, 불교 교리의 핵심의 일부분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바를람과 호사팰』은 부처 설화에 나타난 기본적인 불교적 교리가 마니교에서 재 각색되어 후에 기독교화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실제로도 텍스트 내에서 보여지는 바를람과 호사팰이 행하는 사막에서의 금욕적인 수도 생활은 마니교의 성직자에게 요구하는 모습과 불교적 수도 생활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내적인 증거 외에도 『바를람과 호사팰』이 서아시아의 마니교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한 독일의 원정대는 투르판¹⁴⁾에서 많은 마니교와 고대 불교의 유물을 발견한다.

이들이 발견한 유물에 의하면 『바를람과 호사팰』의 무대가 산스크리트어를 기록 문자로 사용했던 불교와 고대 페르시아어와 고대 터키어를 기록 문자로 사용했던 마니교가 만났던 서아시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르판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부처 설화와 관련된 두 개의 기록물이 있다. 하나는 보디사프¹⁵⁾ 왕자가 늙은 노인과 만난 후에 인생과 속세의 덧없음을 느낀다는 내용의 이야기이고,¹⁶⁾ 다른 하나는 후에 아랍어

12) Robert Charles Zaehner(1956), *The teachings of the Magi : A compendium of Zoroastrian beliefs*, London, George Allen & Unwin, 53-4.

13) Pedro Bádenas de la Peña(1993), "Introducción", *Barlaam y Josafat : Redacción bizantina anónima*, Ed. de Pedro Bádenas de la Peña, Madrid, Siruela, XVI.

14) 동투르키스탄(지금의 중국 신장 자치구역)의 도시이다.

15) 보디사프(Bodisav)는 불교에서 보살(Bodhisattva)에서 비롯된 인명으로 후에 Josafat로 변한다.

16) A. von Le Coq(1909), "Ein christliches und ein manichaisches Manuskriptfragment in türkischer Sprache aus turfan(hinesischtyrjustan)", *Sitzunberichte del Berl. Akad. der Wissens chaften, Phil. Hist. Klasse*, XLVII, 1202-11.

W. Bang(1931), "Manichaische Erzähler", *Le Museon*, XLIV, 7-12.

판본에 삽입되는 이야기로¹⁷⁾, 술에 취한 왕자가 열려진 무덤으로 들어가 시체를 아름다운 여자로 혼동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시체를 꺼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이야기이다. 이 에피소드는 불교나 기독교 판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마니교 판본은 불교 원전에는 없으나 기독교 판본에 전해지는 종교적 탄압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

이 이야기들은 3세기에 소그디아노에서 고대 페르시아어로 쓰여진 이야기가 후에 고대 터키어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또한 투르판 원정대가 발견한 유물 가운데 아쉬바고사의 『부다차리타』의 두 단락과 내용상 일치할 보이는 것도 있다. 6~7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에피소드들은 웰러(F. Weller)에 의해서 출판된다.¹⁹⁾

2. 아랍어 판본

부처 설화의 유럽으로의 전승 과정에서의 다음 무대는 8세기 경의 아랍 지역이다. 아랍어 판본은 마니교 판본에서 비롯되었는데, 첫 번째 판본은 『발라우하르와 부다사프의 책 *Kitab Bilauhar wa Budhasaf*』으로 당시 바그다드에 거주하던 마니교도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8세기 아바스 왕조의 하룬 알 라시드(Harun al-Rashid)의 치하의 바그다드는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상당 부분 타종교에 대한 관대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마니교도, 페르시아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고유한

17) D. M. Lang(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 Georgian MS. 140)",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XX, 389.

18) 헨닝(W. B. Henning)은 1957년 제 25차 동양학 국제 학술 대회에서 고대 터키로 된 보디사프 왕자와 병든 노인과의 만남이 고대 페르시아어로 된 27행의 운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주인공의 빌라르 혹은 뷔디사프로 나타난다. Gibb, A. R., Kramers, J. H., Levi-Provencal, E. and Schacht, J. (Eds.)(1960), "Bilawhar Wa-Yudasaf", *Encyclopaedia of Islam*, Vol. 1, Leiden(Netherland), E. J. Brill, 1215-17.

19) F. Weller(1953), "Zwei zentralasiatische Fragmente des Buddhacarita", *Abhandlungen der Sächsischen Akademic der Wissenschaften, Phil.-hist. Klasse*, XLIV, 4.

D. M. Lang(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 Georgian MS. 140)", 389에서 재인용.

문화와 풍습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 문화와 마니교 영향이 많았다. 그리고 사이비 예언자나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유포되었다. 유다사프(Yudasaf)²⁰⁾도 마니나 조로아스터 혹은 마르키온²¹⁾ 및 여타 이슬람 이단파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이비 예언자중 하나였다.²²⁾

이것은 최소한 당시 바그다드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었거나 최소한 부처의 존재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려져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게다가 아부 이븐 알 나딤의 서지서(書誌書) 『피흐리스트書 *Kitab al Fihrist*』(987~988)를 보면 당시에 최소한 부처나 부다사프에 대한 다음의 세 권의 책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 1) 『부처에 관하여 *Kitab al-Budd*』
- 2) 『발라우하르와 부다사프의 책 *Kitab Bilauhar wa Budhaf*』
- 3) 『부다사프 자서전 *Kitab Budhsaf mufrad*』

애석하게도 이 세 권의 책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할레 필사본(*manuscrito de Halle*)²⁴⁾에 남아 있는 요약본과 이븐 바부야(Ibn Babuya)의 책과 아브라함 벤 사무엘 하라비 이븐 차스다이(Abraham ben Samuel ha-Lavi Ibn Chasdai)의 히브리어 번역본의 내용으로부터 추정해 볼 때,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원전

20) “보디사트바” 혹은 “부다사프”는 아랍 지역에 들어오면서 “유다사프”로 바뀌게 된다.

21) 2세기에 활약한 초기 기독교의 이단자로서 흑해 연안 시노프 출생으로, 생애와 사상은, 그에 대한 기독교 정통과의 반박서를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특이한 주장으로 많은 신봉자를 얻었으며,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 137년경 로마로 가 당시 크리스티교의 유대적(的) 요소를 배척하고 타협적인 교회의 근본적 개혁론을 주창하였다. 144년 교회로부터 배척당하여 독립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새로운 복음서를 편집했다. 그가 형성한 분파는 정통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위협시되어 왔다.

22) D. M. Lang(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 Georgian MS. 140)”, 391.

23) *Encyclopaedia of Islam*(1960), 앞의 책, 1216.

Bádenas de la Peña(1993), 앞의 글, XVIII.

24) 1887년 R. Hommel에 의해 출간되었다: “Die älteste Arabische Barlaam version”, *Verhandlungen des 7 internationalen Orientalisten Congresses*, Vienna, Semit. Section, 115-65. 이것은 레하트세크(E. Rehatsek)에 의해 1890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Book of the king's son and the ascetic”,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II, 119-55.

에 가장 가깝고 가장 완전한 내용의 책은 『부처에 관하여』와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의 책』이 혼재하고 있는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 *Kitab Bilauhar wa Budhaf*』로 이는 1888~89년에 인도의 봄베이에서 처음으로 출판된다.

아랍어 판본의 중요성은 왕자를 자신의 설교로 개종시키는 현자 빌라우하르의 등장이다. 또한 왕자의 새로운 종교에 대한 박해와 왕자를 새로운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왕의 여러 가지 계략, 신학적 논쟁, 수많은 우화(종교적 이유로 많은 우화가 기독교 판본에서는 사라짐) 등이 부처 설화에 나타나지 않다가 새롭게 등장하여 기독교화된 『바를랍과 호사팔』에 전해지는 요소이다.

3. 최초의 기독교 판본에 대한 논란: 그루지아어 판본과 그리스어 판본

아랍어 판본에서 기독교 판본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다.

- 1) 8세기에 성 요한 다마스쿠스(St. John Damascen)에 의해 쓰인 그리스어 판본
- 2) 10세기 경에 쓰여진 그루지야 판본으로 후에 그루지야 출신의 신부 성 에우티미우스(St. Eutimius)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
- 3) 산 사바스²⁵⁾ 수도원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한 그리스 신부에 의한 번역 판본

그리스어 판본은 외적으로 완전한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후에 각 유럽어로 번역된 『바를랍과 호사팔』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약 150여 편의 그리스어 판본이 전해지는데, 그 중 두 편이 서문에서 성 에우티미우스를 작가로 언급하고 있으며, 비교적 훗날에 쓰여진 소수의 필사본이 성 요한 다마스쿠스를 작가로 언급하고 있다. 그 외의 대다수의 필사본은 정확한 이름 없이 성 사바스 수도원의 요한이라는 신부

25)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라는 이름으로 작가를 표기하고 있다.²⁶⁾

최초의 기독교 판본 여부를 밝히는데, 7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생존했던 성 요한 다마스커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작가나 번역자로 인정한다면 그리스어 판본이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 될 것이며,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생존한 성 에우티미우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번역자로 보고, 그 원본을 그루지야 판본으로 본다면, 그리스 판본에 앞선 그루지야어 판본이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 될 것이다.

막스 뮐러(Max Müller)는 자신의 논문에서²⁷⁾ 『바를람과 호사팔』과 『랄리타비스타라』 사이의 본질적인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성 요한 다마스커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작가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그는 요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필사본과 성 요한 다마스커스의 많은 신학서에 바를람과 호세팔의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음을 들었다.

그는 『성 사바스 수도원의 존경받고 덕스러운 요한 신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디아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오지에서 성스러운 땅으로 전해진 바를람과 호세팔의 성스러운 삶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에서, 요한 다마스커스가 말년에 성 사바스 수도원으로 가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음을 들면서 제목에 나오는 요한과 요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동일인임을 주장하였다.

성 요한 다마스커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저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학자 프란츠 뢰게르(Franz Dölger)는 자신의 바를람 연구서²⁸⁾에서 다마스커스의 『오페라 옴니아 *Opera omnia*』와 『바를람과 호사팔』에 나타난 문체, 우화와 교리적 내용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 『바를람과 호사팔』을 성 요한 다마스커스의 작품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성 사바스 수도원의 요한 신부를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필사본들 중 비교적 오래된

26) 가장 일반적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인디아라고도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오지에서 유래하여 성 사바스 수도원의 인자하고 존경받는 요한 신부에 의해 전해지는 건설적 이야기. 바를람과 호세팔의 삶에 대한 이야기』

27) Max Müller(July of 1870), "On the migration of fable", *Contemporary Review*, 588-96.

28) Franz Dölger(1953), *Der griechische Barlaam-Roman, ein Werk des H. Johannes von Damaskos (Studia Patristica et Byzantina, in Gemeinschaft mit den Byzantinischen Instituten Scheyern und Ettal herausgegeben von Johannes M. Hoeck, 1 Heft)*, Ettal, Buchkunstverlag.

것들을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11세기 이후에 쓰여진 필사본들은 다마스쿠스의 작품을 복사한 필사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인도의 승려들이 우연한 기회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 사바스 수도원에서 부처의 이야기를 성 요한 다마스쿠스에게 해 주었고, 이야기의 높은 도덕적인 가치에 감화된 다마스쿠스가 이를 기독교 교리에 맞게 산스크리트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가설을 내세웠다.²⁹⁾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사망(749년)이후, 현재 전해지는 11세기(아무리 시기를 일찍 잡아도 10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초창기 그리스어 필사본³⁰⁾ 사이에 약 300여 년 동안 바를람과 호세팔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300여 년 간 바를람과 호사팔은 어떠한 성인 열전을 다룬 이야기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바를람과 호사팔, 호사팔의 아버지인 아베네르(Abener)가 정교회와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성도제일표(聖徒祭日表)에 등장한 것은 11세기 이후의 일이다.³¹⁾ 바를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1세기 시메온 메타프라스테스(Simeon Metaphrastes)에 의해 편찬된 성인들의 기록물에서이다. 즉 바를람과 호세팔에 대한 그리스어로 된 자료는 모두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될게르가 제기한 가설, 즉 인도의 승려들이 다마스쿠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해 주고 다마스쿠스가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사실성이 떨어진다. 인도나 네팔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소그디아나, 페르시아, 아랍 세계에 널리 퍼졌던 부처 이야기 혹은 바를람과 호세팔의 이야기에서 기독교 판본의 원형을 찾지 않고, 직접적

29) Pedro Bádenas de la Peña(1993), 앞의 글, XXII.

30) 편찬 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필사본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아무리 빨라야 10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며, 총 여섯 개의 필사본이 있다 : Athen. 330, Athous Laurae G. 94[334], Laur. C. S. 115, Sianit. Gardth. 524, Dujcev 270, Vat. gr. 2025.

그리고 시기가 명확히 언급된 것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은 1021년 필사본이 최초의 것으로, 아토스 산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도시 오데사(Odessa)에서 발견되어 현재 키예프 도서관에 보관(Ms. V. 3692)되어 있다.

31) 바를람은 8월 26일, 호세팔은 11월 27일, 아베네르는 8월 3일이 제일로 되어 있다.

으로 인도와 비잔틴제국이 접촉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그리스어 판본의 『바를람과 호사팔』은 여타의 비잔틴 종교 문학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어휘의 사용, 문체적 유려함, 문장의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문학적 수준을 이룬 작품으로써, 이는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작품일 가능성보다 후대의 인물인 성 요한 크리스토팔이나 그레고리오 데 나치안조의 글에 문체적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 요한 다마스쿠스를 『바를람과 호사팔』의 그리스어 판본의 저자 혹은 번역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 가설인 에우티미우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번역자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두 개의 그리스어 판본에 에우티미우스를 그루지야어에서 그리스어로의 번역자로 보고 있으며, 최초의 라틴어 판본의 제목도 에우티미우스를 그루지야어에서 그리스어로의 번역자라고 언급하고 있다.³²⁾

폴 피터(Paul Peeters)는 언어학적인 특징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기독교 판본의 원형으로 아랍어 판본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어 판본과 그루지야어 판본이 서로 독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 판본은 성 에우티미우스에 의해 그루지야어 판본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³³⁾ 즉 부처 설화의 최초의 기독교 판본의 저자 혹은 번역가는 산 사바스 수도원의 요한 신부도 아니고, 성 요한 다마스쿠스도 아닌, 무명씨의 그루지야어 판본의 저자 혹은 번역가이며, 바로 이 그루지야어 판본이 성 에우티미우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어 판본이 쓰여진 시기를 에우티미우스가 생존했던 10세기 말에서 최초의 라틴어 판본이 쓰여진 1048년 전으로 보고 있

32) 최초의 라틴어 판본은 현재 나폴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VIII. B. 10, ff. 411v-502v), *Hystoria Barlae et Iosaphat de interiori Aethiopia deducta per venerabilem monachum monasterii sancti Sabae in Heliam urbem et translata in colico per Eufinium sancti virum*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José Martínez Gázquez(Ed.)(1997), *Hystoria Barlae et Iosaphat (Bibl. Nacional de Nápoles VIII. B. 10)*, Madrid, CSIC.

33) Paul Peeters(1931), "La premiere traduction latine de Barlaam et Jousaph et son original grec", *Analecta Bolladiana*, 59, 276-312.

다.

에우티미우스를 최초의 그리스어 판본의 번역가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은 폰 로제(Von Rose)였다.³⁴⁾ 그 근거로 그는 에우티미우스를 그리스어 판본의 번역가로 언급하고 있는 두 권의 그리스어 판본을 들고 있다.³⁵⁾ 에우티미우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그루지야 출신의 성직자이다. 지리적으로 그루지야는 인도에서부터 아랍 세계에 전해진 부처 설화의 동양적 원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웃한 기독교 세계의 관문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루지야는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 I, 274~337, 제위 306~337)시기부터 비잔틴 제국과 밀접한 문화적·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편 수도인 티플리스(Tiflis, 현재 그루지야의 수도 티빌리시의 옛 이름)가 655년 이후 바그다드에서 파견된 에미르(emir, 首長) 혹은 부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그루지야는 아랍과 비잔틴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

440년경부터 그루지야인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성지와 근처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 지방까지 이주하기 시작하여 8세기 경에는 제법 많은 그루지야인들이 살게 되고,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속적으로 아랍인들과 아랍 문화와 접촉하면서 동서양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8세기 후반부터 일단의 번역가 및 서기들이 산 사바스 수도원을 비롯하여 여러 수도원에 나타났다. 많은 양의 자료를 기록한 이들은 주로 그리스어로 된 많은 기도문을 그루지야어로 번역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시리아어나 아르메니아어, 아랍어로 된 이야기들도 수집하여 번역하였다.

34) Robert Lee Wolff(1939), "Barlaam and Ioasaph",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XII, 132-33.

35) 한편은 베네치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Marc, VII, 26. 11세기 혹은 12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 『이베로라고 불리는 존경받고 신앙심이 깊은 성 사바스 수도원의 요한 에우티미우스에 의해 이베로인(그루지야인)들의 언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에티오피아 내부에서 태양의 나라로 영혼을 이끌 건설적 이야기』.

다른 한편은 파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Par. gr. 1771.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 『로마제국의 에티오피아 내부에서 전해져서, 아토스 산의 성 아타나시오 학교의 교수였던 이베로인 신부인 에우티미우스에 의해 에티오피아 방언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영혼을 위한 건설적 담론』.

지금도 원본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책들의 그루지야어로 된 요약 번역본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³⁶⁾

또한 에우티미우스는 아토스 산의 그리스어 필사본 목록 4467번과 4473번에 일대기가 전해지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다. 어렸을 때, 콘스탄티노플에 거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잔틴 문화와 그리스어를 배울 수 있었던 그는 성직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루지야어 성경의 편찬 작업에 관여했으며, 요한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중요한 그리스 성직자들의 글을 그루지야어로 번역했다. 여러 필사본 기록들에 따르면 에우티미우스는 약 160여 편의 번역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말년에 아토스 산의 이비론 수도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1028년 궁정을 방문하러 가는 도중 길에서 사고로 사망한다.³⁷⁾

이상의 에우티미우스의 전기(傳記)를 근거로 본다면, 에우티미우스가 그리스어 판본을 그루지야어 판본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전해지는 수 편의 그루지야어 판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9세기말에 발견된 『발라바리의 지혜 *La sabiduria de Balahvari*』³⁸⁾이다. 이 판본은 아랍어 판본이나 그리스어 판본보다 훨씬 짧으며 몇 개의 에피소드는 이야기하는 방식이 양자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인명 및 지명은 아랍어에서 와서 그리스어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 작품에 내재한 기독교 체계와 여러 우화의 순서 등을 살펴볼 때, 그리스 판본보다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루지야어 판본이 부처 설화의 동양어 판본과 기독교 판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그루지야어 판본이 발견된다. 현재

36) D. M. Lang(1967), "Introducción", 앞의 글, XXIII-XXIV.

37) D. M. Lang(1956), *Lives and legends of the georgian saints*, London & New York, George Allen and Unwin & Macmillan Co., 154-63.

38) 타콰이스빌리에 의해 출간된다. E. Taquisvili(Ed.)(1897-1898), "*Sibrzne Balavarisi*", *Zapiski Vostocnago Otdeleniya*, XI, 5-48.

D. M. Lang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다. D. M. Lang(Trad.)(1957), *The wisdom of Balahvar. A christian legend of the Buddha*, London & New York, George Allen and Unwin & Macmillan Co.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성당 도서관에 보관(Gr. Mss. No. 140) 되어 있는 이 텍스트는 『정신적 스승 발라바르가 개종시킨, 인도의 왕 아베네스의 행복한 아들 요다사프의 삶 *Tskhovrebay [da moghwadseobay netrari]sa Iodasap'isi dzisa Abenes Hindot'a mep'isay, romeli moak'tsia netarman mamaman Balahvar modzghwarman : Gwakurt-then, Mamao*』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다.³⁹⁾ 여타의 그루지야어 판본 텍스트들보다 훨씬 더 길고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직접적으로 아랍어에서 비롯되었다. 8세기경에 바그다드에 널리 퍼졌던 『발라우하르와 부다사프의 책 *Kitab Bilauhar wa Budhasaf*』를 기독교화 한 것으로, 약 9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리스와는 달리 그루지야에서는 이미 10세기 이전에 호사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성 죠지 하지오리테(St. George Hagiorite, 1009-1065)가 호사팔에 대한 찬가(讚歌)를 현대화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이미 그 이전에 호사팔에 대한 찬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루지야어 판본이 그리스어 판본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이나 지명 같은 텍스트 내의 어휘적인 특징에서도 그루지야어 판본이 아랍어 판본에서 직접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두 아랍어 판본의 재생임을 알 수 있다. 그루지야어 판본에 나타난 인명 및 지명을 아랍어 판본과 그리스어 판본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아랍어 판본	→	그루지야어 판본	→	그리스어 판본
		인명 ⁴⁰⁾		
Bilauhar		Balahvar		Barlaam
Budasaf /		Iodasaph		Ioasaph
Yudasaf				
Janaisar ⁴¹⁾		Habeneser		Abenne

39) D. M. Lang(Trad.)(1966), *The Balavariani (Barlaam and Josaphat) : A tale from the christian east*, London, George Allen & Unwin.

40) D. M. Lang(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 (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 Georgian MS. 140)", 399.

	Abenes / Iabenes	
Rakis	Rakis	Araches
al-Bahwan / Tahdam	Tedma	Teudas
-	Barakia	Barachias
-	Nakor	Nachor
-	Zadan / Zandan	Zardan
	지명 ⁴²⁾	
Shawilabatt / Sulabat ⁴³⁾	Sholait / Boait	-
Serendib ⁴⁴⁾	Sarnadib	Sennar ⁴⁵⁾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그루지야어 판본은 아랍어 판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스어 판본에 영향을 준 최초의 기독교 판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랍어 판본과 그루지야어 판본과 그리스어 판본의 내용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루지야어 판본은 기독교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아랍어 판본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어 판본에는 『아리스티데스의 예찬 *Apologia de Aristides*』⁴⁶⁾을 제외하고는 그루지야어 판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다. 만일 그루지야어 판본이 그리스어 판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아리스티데스의 예찬』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그루지야어 판본에 없는 것을 그리스어 판본의 번역가 에우티미우스가 기독교 교리적

41) 산스크리트어로 *Janesvara*는 왕을 의미한다.

42) D. M. Lang(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 (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 Georgian MS. 140)", 399.

43) 술라바트(Sulabat)는 카필라바스투로서 부처님이 태어난 왕국의 수도이다.

44) 실론(Ceylon, 스리랑카)을 가리킨다.

45)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킨다.

46) J. Rendel Harris and J. Armitage Robinson(Eds.)(1893), *The apology of Aristides on behalf of the christians, from a Syriac ms. preserved on Mount Sinai (Texts and Studies)*, Cambridge, The Univ. Press.

인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루지야어 판본에 나오는 14개의 우화들은 하나만 제외하고 정확하게 아랍어 판본에 나오는 우화의 내용과 순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리스어 판본에 나오는 우화의 수는 그루지야어 판본의 우화보다 적을 뿐 아니라 아랍어 판본에 나오는 우화들의 순서와도 전혀 다르다. 이것 역시 아랍어 판본과 그루지야어 판본의 인접성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그루지야어 판본의 그리스어 판본에 대한 시기적 선행성을 증명하는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라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어 판본의 중요성이 그루지야어 판본보다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를람과 호사팔』이 전 유럽으로 유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어 판본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11세기 무렵부터 그리스어 판본으로부터의 번역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후에 나타나는 각 유럽어 판본들은 그리스어 판본들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부처 설화가 마니교 판본에서 마니교적인 요소를 함유한 내용으로 변형되었고, 아랍어 판본에서 아랍 문화에 맞게 각색되었다가, 그루지야어 판본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적으로 변형되고 그리스어 판본에서 보다 완전한 기독교화된 판본으로 완성된다. 이렇듯 끊임없이 변형되어 전승되었던 부처 설화가 그리스어 판본을 기점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멈춘 상태에서 단순 번역되어 전 유럽에 퍼지게 과정을 겪는다.

4. 라틴어 판본

11세기 중엽부터 『바를람과 호사팔』은 그리스어에서 슬라브어 계열의 러시아어, 벨로루시아어, 세르비아어, 아르메니아어 등으로 번역되어 동유럽의 정교회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 조금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특히 두 편의 라틴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바를람과 호사팔』이 전 서유럽의 카톨릭 지역으로 퍼지게 된다.

그 중 한 편은 앞서 언급한 1048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번역된 최초의

라틴어 번역판⁴⁷⁾으로 이는 그리스어 판본과 거의 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라틴어 작품은 교황 유게니우스 4세(Eugenius IV)의 비서였던 트라페순티우스(G. Trapezuntius, 1396-1485)에 의해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불가타 *Vulgata*』에 포함된 바를람과 호사팔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야콥스 데 보라지네(Jacobus de Voragine, 1230-1298)의 『황금전설 *Legenda Aurea*』⁴⁸⁾과 벤센티우스 벨로바센시스(Vencentius Bellovacensis 1190-1264)의 『역사의 거울 *Speculum Historiale*』에 포함된 바를람과 호사팔의 이야기도 전 유럽에 널리 퍼졌다.⁴⁹⁾

바를람과 호사팔의 이야기가 스페인에 들어온 것은 라틴어 판본으로 유포된 것이다. 현재 스페인에 남아 있는 초창기의 대표적인 라틴어 필사본으로는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12세기 필사본과 역시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13세기의 요약본(Códice 9783, fols. 127v-139r), 엘 에스코리알 도서관에 있는 요약본과 팔라시오 도서관(Biblioteca Palacio)에 있는 14세기 필사본이 있다.⁵⁰⁾

5. 스페인어 판본

13세기에서 15세기 동안 스페인에는 라틴어 판본의 『바를람과 호사팔』과 더불어 많은 스페인어 필사본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오직 세 편이 있을 뿐이다.⁵¹⁾

47) 주 32 참조.

48) 13세기 이탈리아 제노바 대주교인 야콥스 데 보라지네가 라틴어로 성인열전(聖人列傳)을 집성한 것으로, 원제목은 『성인 이야기 *Legenda sanctorum*』이지만 널리 유포되고, 신앙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15세기에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저는 1267년 무렵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280장으로 집성되었으나, 계속 증보되어 15세기는 440장으로 늘어났다. 크리스티교를 위해 순교한 많은 성인들의 생애와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윤색하고 공상화·전설화하였다.

Jacobus de Voragine(1985), *Legenda Aurea : a reexamination of its paradoxical history*, Ed. de Sherry L. Reames, Madison, The Wisconsin Press.

49) Olga T Impey y John E. Keller(1979), “Introducción”, *Barlaam e Josafat*, Eds. de John E. Keller y Robert W. Linker, Madrid, CSIC, XVII.

50) 이 필사본은 서문에 “Incipit prologus Vincentii Bellovacensi...”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벤센티우스 벨로바센시스의 작품의 복사본으로 여겨진다.

51) Patricia Cañizares(2000), “La historia de los dos soldados de Cristo. Barlaam y Josafat

우선 1470년에 페뜨루스 오르띠스(Petrus Ortiz)에 의해 복사필(複寫筆)되어 현재 살라만카 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인 『인도의 왕, 호사팔과 베를란 이야기 *El libro de Berlan e del rrey Josapha de India*』가 있다. 언어적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이 텍스트는 원래 13세기 말엽에 쓰여진 스페인어로 된 최고(最古)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텍스트를 약자로 『필사본 P (Ms. P)』로 표시한다.

다음은 현재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베니르의 아들 호세파 왕자와 축복받은 바를란의 이야기 *El libro del bienaventurado Barlaan e del infante Josafa, fijo del rrey Avenir*』로 번역자나 필사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언어적 특징상 15세기 말엽의 작품으로 『필사본 P』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텍스트를 약자로 『필사본 G (Ms. G)』로 표시한다. 이 두 작품 모두 13세기의 같은 라틴어 원천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은 스트라스부르그 대학도서관에 보관 중인 『교회의 4명의 박사에 대한 이야기 *Estoria de los quatro doctores de la Iglesia*』로 14세기 말 혹은 15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소(小)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 헤로니모, 성 암브로시오, 성 아구스틴, 그레고리오 교황의 성스러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베니르 왕과 호사팔, 바르람의 이야기 *La estoria del rrey Avenir e del Josaphat e de Barlaam*』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벤센티우스 벨로바센시스의 『역사의 거울』의 제 4권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텍스트를 약자로 『필사본 S (Ms. S)』로 표시한다.

이들 세 권의 스페인어 판본의 텍스트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모두 라틴어 판본의 직·간접적인 번역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세 편 모두 15세기에 복필사되었으나, 언어적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15세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중에서 가장 길고 내용상으로 완벽한 텍스트는 『필사본 P』이고, 이에 비하여 『필사본 G』는 번역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다. 『필사

traducida por Juan de Arce Solorzano (Madrid, 1608)", *Cuadernos de Filología Clásica*, 19. 259-71.

본 S』는 가장 짧은 작품으로 앞의 두 작품과는 다른 라틴어 판본을 번역의 원전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이고, 단어 대(對) 단어의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⁵²⁾

이 세 권의 필사본 이외에도 야콥스 데 보라지네의『황금전설』의 축약본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수도원장 바를람 이야기 *Ystoria del Abad Barlaam*』라는 제목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그 중에서 두 권의 필사본이 현재 마드리드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⁵³⁾ 15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3세기 말이나 14세기 초의 언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바를람과 호사팔』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우화들 역시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다.⁵⁴⁾ 대표적인 것으로 페드로 알폰소(Pedro Alfonso)의 『성직자 규율 *Disciplina clericales*』과 아랍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갈릴라와 덤나 *Calila y Digna*』와 『씨파르 기사 이야기 *Libro del Caballero Cifar*』에서 우리는 『바를람과 호사팔』에서 볼 수 있는 우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바를람과 호사팔』은 돈 후안 마누엘(Don Juan Manuel)의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하여 『루까노르 백작 *Libro de los Conde Lucanor*』와 『국가에 관하여 *Libro de los Estados*』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후자는 『바를람과 호사팔』과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 요소를 가지고 있다.⁵⁵⁾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클레멘테 산체스 데 베르씨알(Clemente Sánchez de Vercial)의 『a. b. c. 우화 *Libro de los enxemplos por a. b. c.*』와 『고양이 이야기 *Libro de los gatos*』, 『블란케르나 *Blanquerna*』, 『연인의 고백과 평신도들의 거울 *El espejo de los*

52) 이 세 개의 필사본은 John E. Keller와 Robert W. Linker에 의해 1979년 출간된다 : *Barlaam e Josafat*, Madrid, CSIC.

53) Pedro Bádenas de la Peña(1993), 앞의 글, XL.

54) Olga T Impey y John E. Keller(1979), 앞의 글, XXXIV-XXXV.

55) 부처 설화와 서로 공통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으로는 부자지간의 믿음의 갈등이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 관하여』는 이교도 왕인 모로반(Morován)과 그의 아들 호아스(Johás) 간의 종교적 갈등과 기독교인 훌리오(Julio)의 호아스에 대한 교육이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것은 『바를람과 호사팔』의 기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이다. 또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대한 에피소드는 호사팔이 궁밖으로 나가서 만나게 되는 병자와 노인과의 만남의 에피소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에피소드이다.

legos y la confesión del amante』⁵⁶⁾에서도 『바를람과 호사팔』에 나오는 우화들이 나타난다.

17세기 들어서서 『바를람과 호사팔』에 대한 보다 완전한 번역 판본이 나타난다. 우선 1608년 후안 데 아르세 솔로르싸노(Juan de Arce Solórzano)에 의해 라틴어 판본에서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된 『예수님의 병사, 바를람과 호사팔 *Historia de los dos soldados de Cristo, Barlaam y Josafat*』⁵⁷⁾가 있으며, 발타사르 데 산타 크루스(Baltasar de Santa Cruz)가 1692년 역시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마닐라에서 출간한 『유쾌한 진실 *Verdad nada amarga*』 번역본이 있다.⁵⁸⁾

『바를람과 호사팔』을 최초로 연극화한 흥미있는 작품으로 『따니스도 루스 희비극 *Tragicomedia Tanisidorus*』가 있으며, 후안 데 아르세 솔로르싸노의 번역본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추정되는 로페 데 베가도 1611년 동명 희곡 『바를람과 호사팔 *Barlaán y Josafá*』를 썼다.⁵⁹⁾ 동시대의 깔데론 데 라 바르카도 로페 데 베가의 드라마에서 자신의 『인생은 꿈이다』의 제 1막의 핵심 소재의 영감을 받았다.

56) 이 작품은 영국 시인 존 고워(John Gower)의 『연인의 고백 *Confessio amantis*』에 대한 후안 데 꾸엔카(Juan de Cuencia)의 스페인어 번역 판본이다. 영어 원전은 리처드 2세의 요청으로 쓰여졌으며, 헨리 4세에게 봉헌되었다.

57) Juan Damasceno(1608), *Historia de los dos soldados de Cristo, Barlaam y Iosaphat. Escrita por San Juan Damasceno*, Trad. por Juan de Arce Solórzano, Madrid, Imprenta Real.

Oscar de la Cruz Palma(2001), *Barlaam et Iosaphat, versión vulgata latina, con la traducción castellana de Juan de Arce Solórzano (1608)*, Madrid, CSIC.

58) *Verdad nada amarga : hermosa bondad, honesta, útil y deleitable, grata moral Historia. De la rara vida de los famosos y singulares Sanctos Barlaam y Josaphat. Según la escribió en su idioma griego el glorioso Doctor y Padre de la Iglesia San Juan Damasceno, y la passó al latín el doctísimo Jacobo Billio : de donde la expone en lengua castellana a sus Regnicolas, el mimimo de los Predicadores de la provincia del Sancto Rosario de las islas Filipinas, Fr. Baltasar de Santa Cruz, Comissario del Santo Officio de Manila. Impresso en Manila en el Colegio de Sancto Thomás de Aquino. Por el capitán D. Gaspar de los Reyes, impresor de la Universidad. Año de 1692*, Trad. de la versión latina de Biblio por Fr. Baltasar de Santa Cruz, Manila, G. de los Reyes, 1692.

59) José F. Montesinos(1935), “*Barlaán y Josafat*”, En Lope de Vega, *Teatro antiguo español, VIII, Barlaán y Josafat*, Ed. de José F. Montesinos, Junta para Ampliación de Estudios y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Madrid, Centro de Estudios Históricos, 183.

Marcelino Menéndez y Pelayo(1961), *Origenes de la novela*, Tomo I, Madrid, CSIC, 57.
Cañizález, Patricia(2000), 앞의 글, 263.

III. 나오는 말

한역본을 통해 우리에게 친근한 부처 설화는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생성된 이후 대승불교 경전의 형태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그리고 소승불교 경전을 통해 스리랑카를 거쳐 동남아 각국으로 각각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부처 설화가 인도의 동쪽으로만 전승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부처 설화는 페르시아와 아랍 지역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변형되며 서쪽으로도 전승되다가 그루지야와 그리스를 거치면서 기독교화되어 여러 유럽의 언어, 그중에서도 스페인어까지 번역되어 전이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논란이 많은 최초의 기독교 판본에 대하여 역사적·지정학적 조건과 내용적인 측면, 인명과 지명 등 어휘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성 요한 다마스쿠스를 작가로 본 그리스어 판본이 최초의 기독교 판본이 아니라 무명씨의 그루지야어 판본을 최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바로 이 그루지야어 판본을 에우티미우스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최초의 기독교 판본은 그리스어 판본이 아니라 그루지야어 판본으로 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부처 설화가 페르시아와 아랍 지역을 통해 원형의 모습이 변형되며 서쪽으로도 전승되다가 그루지야와 그리스를 거치면서 기독교화 되어 여러 유럽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퍼져가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갔으며 중세기 서양에 널리 퍼진 작품의 뿌리가 부처설화였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교 문학적인 주제나 동·서양의 문화 교류사적인 주제 등,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연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frm=nt>
- 야후 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enc/>
- 망월신형(望月信亨)(1995),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김진열 역, 서울, 불교시대사.
- 장택화준(長澤和俊)(1991), 『동서문화의 교류』, 민병훈 역, 서울, 민족사.
- Bádenas de la Peña, Pedro(Ed.)(1993), *Barlaam y Josafat : Redacción Bizantina Anónima*, Madrid, Siruela.
- Bang, W.(1931), “Manichaische Erzähler”, *Le Museon*, XLIV, 7-12.
- Cañizares, Patricia(2000), “La historia de los dos soldados de Cristo, Barlaam y Josafat traducida por Juan de Arce Solorzano(Madrid, 1608)”, *Cuadernos de Filología Clásica*, 19, 259-71.
- Cotterell, Arthur(1988), *Diccionario de mitología universal*, Barcelona, Ariel.
- Damasceno, San Juan(1608), *Historia de los dos soldados de Christo, Barlaam y Josafat. Escrita por San Juan Damasceno, doctor de la Yglesia griega*, Trad. por Juan de Arce Solórzano, Madrid, Imprenta Real.
- Dölger, Franz(1953), *Der griechische Barlaam-Roman, ein Werk des H. Johannes von Damaskos (Studia Patristica et Byzantina, in Gemeinschaft mit den Byzantinischen Instituten Scheyern und Ettal herausgegeben von Johannes M. Hoeck, 1 Heft)*, Ettal, Buchkunstverlag.
- Keller, John E. and Linker, Robert W.(Eds.)(1979), *Barlaam e Josafat*, Madrid, CSIC.
- Lang, D. M.(1957), *The wisdom of Balahvar, a christian legend of the Buddha*, London & New York, George Allen and Unwill & Macmillan Co.
- _____ (1957), “The life of the blessed Iodasaph: A new oriental christian version of the Barlaam and Ioasapa romance (Jerusalem, Greek patriarchal library: Georgian MS. 140)”,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XX, 389-407.
- _____ (1966), *The Balavariani (Barlaam and Josafat): A tale from the Christian East*, Translated from the old georgian, Intro. by Ilia V. Abuladze, Leicester, Blackfriars.
- Le Coq, A. von(1909), “Ein christliches und ein manichaisches Manuskriptfragment in türkischer Sprache aus turfan(hinesischtyrjustan)”, *Sitzunberichte del Berl. Akad. der Wissens chaften*, Phil. Hist. Klasse, XLVII. 1202-11.

- Lope de Vega(1935), *Teatro antiguo español, VIII, Barlaán y Josafat*, Ed. de José F. Montesinos, Madrid, Junta Ampliación de Estudios y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Centro de Estudios Históricos.
- Menéndez y Pelayo, Marcelino(1961), *Orígenes de la novela*, Tomo I, Madrid, CSIC.
- Müller, Max(July of 1870), “On the migration of fable”, *Contemporary Review*, 588-96.
- Peeters, Paul(1931), “La premiere traduction latine de Barlaam et Joasaph et son original grec”, *Analecta Bolladiana*, 59, 276-312.
- Wolff, Robert Lee(1939), “Barlaam and Ioasaph”, *Harvard Theological Review*, XXXII. 131-39.
- Zachner, Robert Charles(1956), *The teachings of the Magi: A compendium of Zoroastrian beliefs*, London, George Allen & Unwin.

김선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백마마을 벽산아파트 606-1003

E-Mail: seonukk@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4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